佛道 부산, 장엄등 점등…“평화 기원”

4월 28일, 부산 송상현 광장서

부산연등문화제 개막식 봉행
호기놀이 등 전통문화 선보여
연등행렬 및 연희단 행사 장엄
‘부산엑스포’ 유치 발원도 겸해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불교연합회는 4월 28일 부산 송상현 광장에서 불기2567년 부산연등축제 부산연등문화제 개막 점등식을 봉행했다.

불기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하며 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밝은 연등이 불을 밝혔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점등식을 시작으로 부산연등문화제 시작을 힘차게 알렸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보운)는 4월 28일 부산 송상현 광장에서 불기2567년 부산연등축제 부산연등문화제 개막 점등식을 봉행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이날 신나는 풍물패 공연과 한마음선원 연희단이 선보이는 아름다운 간이 연등행렬과 함께 어린이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는 선재동자 문화전승단의 호기놀이 재현으로 전통문화의 역사 및 가치를 널리 알렸다. 호기놀이는 고려시대 어린이들이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진행한 민속놀이다. 어린이들은 집을 밝힐 연등을 만들기 위해 종이로 깃발을 만들고 마을을 돌며 쌀과 베를 구하고 연등을 만들 비용을 얻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매년 선재동자 문화전승단 어린이들의 호기놀이 시연을 통해 전통문화를 알리고 대중에게 선보이고 있다. 또 부처님 떡으로 알려져 있는 느티떡을 나누며 알려지지 않은 전통문화를 재현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느티떡 재현을 위해 부산불교 사찰에 협조를 요청하고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며 사찰을 찾는 대중들에게 알리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개막 점등식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보운 스님, 수석부회장 영제 스님, 상임부회장 현강 정사, 마나 스님 등 원로대덕 스님과 부산불교연합회 소속 스님을 비롯해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회장,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점등식은 △개회 △삼귀의례 및 반야심경 △환영사 △봉행사 △축사 △점등사 △축가 △선재동자 문화전승단 호기놀이 △점등식 △연등행렬 순으로 진행됐다.

내빈들이 불법승 구호에 맞춰 점등을 하자 장엄등의 화려한 불빛이 송상현 광장을 가득 메웠으며 오고가는 시민들은 장엄등 앞에서 사진을 찍고 부처님오신날을 함께 기념했다. 장엄등은 불교를 전하는 내용 뿐만 아니라 민속적인 내용과 캐릭터 모습을 담은 다채로운 모습으로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대형 전통등 전시는 4월 28일 점등을 시작으로 5월 14일까지 총 17일간 빛을 밝힌다. 또 소구소망을 담은 소원등 달기 체험을 진행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소원등 달기 체험비는 1000원이며 수익금은 사회에 환원해 소외 이웃에게 회향된다. 어린이날이 있는 5월 5일과 6일 동안에는 각 종단과 사찰, 신행단체가 무료로 운영하는 체험부스를 운영해 전통문화를 체험하도록 돕는다.

부산 원오사, 新 명상센터 중창불사 회향

4월 29일, 포교와 나눔 도량으로



부산 원오사가 4월 29일 경내 대웅전에서 ‘원오사 중창불사 준공법회’를 봉행하고 수행포교와 복지나눔의 최고 도량이 될 것을 발원했다.

부산 원오사(주지 정관)는 4월 29일 경내 대웅전에서 ‘원오사 중창불사 준공법회’를 봉행하고 수행포교와 복지나눔의 최고 도량이 될 것을 발원했다.

법회에는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과 극락암 감원 관행 스님, 조계종 부산연합회 회장 원허 스님, 통도사 극락문도 스님 및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법회는 △삼귀의 및 반야심경 △법요집 봉정 △경과보고 및 내빈소개 △주지 스님 인사말 △격려사 및 축사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원오사 주지 정관 스님에게 포교 및 중창불사에 노력한 공로를 치하하며 표창패와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어 주지 정관 스님은 통도사 요양병원 건립 불사를 위한 후원금 3000만 원을 약정했다.

원오사 신축 명상센터는 연면적 1056㎡(약 330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이다.지하 1층에는 주차장, 지상 1층에는 공양간이 마련됐으며 2층에는 요사채 및 접견실, 3층은 명상실 및 다목적실이 자리한다. 4층은 종무소와 쉼터로 구성되며 4층에서 바로 대웅전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어 접근성을 높였다.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지역 어르신 및 어린이도 편리하게 대웅전을 찾아 참배할 수 있도록 도왔다.

원오사 주지 정관 스님은 “은사이신 명정 선사는 선방 공부 뿐만이 아니라 포교를 하는 것도 수행이라 말씀하셨다.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고 그 결과가 오늘 원오사에서 여러분을 맞으며 보려드릴 수 있게 된거 같다”며 “불사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더욱 포교와 복지 나눔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원오사는 2006년 통도사 극락암 고원 명정선사가 운봉사를 인수하고 원오사로 사명을 변경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불교환경연대, 1주년 기념 전시회

4월 29일 대원각사서



부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안도)가 4월 29일 대원각사 달빛금차문화원에서 창립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는 △삼귀의 △우리말 반야심경 △내빈소개 △인사말 △격려사 △불자환경오계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날 행사에는 안도 스님(부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 스님(울산백련사 주지), 정찬 스님(도림사 주지) 외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총장 등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창립 1주년을 기념하며 부산불교환경연대는 낙동강 정경과 철새 사진 전시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공유했다. 이어 무소유나눔페스타를 진행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대가 없이 나누며 무소유를 직접 체험하도록 도왔다.

안도 스님은 “우리가 살리면 우리를 살린다라는 슬로건으로 지난해 4월 20일 창립한 부산불교환경연대 활동이 어느새 1주년을 맞이했다. 생명와 생태 그리고 환경운동이 부처님 가르침에 가장 부합하는 일임을 지난 1년 동안 활동 속에서 배웠다”며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다시 새롭게 걸어갈 준비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창립 1주년 기념 전시회는 낙동강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달빛금차문화원 내에 낙동강에 사는 텃새와 철새들의 사진들을 전시하여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영도구불교聯, 석가탑 봉축탑 불 밝혀

4월 29일, 영도구 봉래교차로서



부산 영도구불교연합회(회장 호법)가 4월 29일 영도 봉래교차로 교통섬에서 불기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영도구불교연합회 봉축탑 및 연등점등식’을 봉행했다.〈사진〉

점등식에는 영도구불교연합회 회장 호법 스님, 재단법인 영도문화복지재단 이사장 하림 스님, 사상구불교연합회장 성림 스님, 법화종부산교구 종무원장 법경 스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을 비롯해 김희윤 영도구불교연합회 신도회장, 황보승희 국회의원, 김기재 영도구청장, 안성민 부산시의회의장, 이경민 영도구의회 의장 등이 동참했다.

점등식은 개식선언으로 시작해 삼귀의 및 반야심경, 내빈소개, 발원문, 인사말, 축사, 점등, 축가 순으로 진행됐다.

호법 스님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해결하고 벗어날 수 있는 진리를 열어주시기 위함”이라며 “부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이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통과 안타까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희윤 영도구불교연합회 신도회장은 “부처님께서 지혜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고, 자비의 빛으로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셨던 것처럼, 부처님 오신 기쁜날을 맞아 미약한 우리들도 부처님 닮으려는 마음을 가다듬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기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진구불교聯, 부처님오신날 점등식

5월 2일, 서면 영광도서 앞 광장서

부산진구불교연합회(회장 세운)가 5월 2일 서면 영광도서 앞 광장에서 불기2567년 부처님오신날 점등식을 봉행했다.〈사진〉

부산진구불교연합회는 매년 부산을 대표하는 번화가인 서면 중심에서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법회를 봉행하고 시민들에게 부처님이 이땅에 오신 뜻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점등식 후 오후 6시 30분부터 한시간 동안 기도하며 부산시민들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고 성금을 모금한다. 기도 시간에는 거리를 오고가는 시민들이 성금을 십시일반 보시하고 후원금은 소외 이웃을 위해 회향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점등식은 먼저 서해수호 전사자 55인 및 호국영령을 위로하는 위령재로 진행됐다. 개회사에 이어 삼귀의 및 반야심경, 발원문 낭독, 점등, 내빈소개, 봉행사, 축사, 법문 순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교계에서 활동하는 언론사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점등식에는 혜총 대종사와 회장 영제 스님, 보원 스님, 법봉 스님, 시광 스님, 원상 정사를 비롯해 서병수 국회의원, 이헌승 국회의원, 박현철 부산진구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혜총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투지 않았다면 우리 삶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갖고 좋은 행동을 한다면 행복의 첫걸음을 걷는 것임을 말씀해주셨다”며 “부처님이 말씀해주신 인과의 법칙을 알고 지혜로는 불자와 시민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제 스님은 “오늘 우리가 밝히는 자비의 등불은 부처님의 법을 밝히고, 각자의 마음에 있는 자성을 드러내어 세상을 이롭게 만들어가는 광명”이라며 “오늘 무명을 밝히는 등불을 통해 탐진치 삼독이 묻기 전의 마음자리를 찾아서 이 세상을 고통이 없는 연화정토를 구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법연종 · 거인병원 MOU체결

5월 3일, 법연종 부산본원 연정사 연화홀에서



대한불교 법연종(종정 조연)과 부산 거인병원(대표원장 이승준)이 5월 3일 법연종 부산본원 연정사내 연화홀에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협약식은 법연종과 거인병원이 협력해 불자들의 건강 향상에 앞장서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의료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크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식으로 전국에 있는 법연종 모든 신도들은 거인병원에서 비급여 치료비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연종은 회주 법연 스님이 1998년 창종해 소의경전을 〈지장경〉으로 삼아 지장신앙의 구현을 목적으로 신행활동을 하고 있다. 전국 151개 사찰이 있으며 경남 합천 황매산 법연사가 본산으로 지난 법연사 낙성식 당시 3만여 명의 불자들이 운집해 눈길을 모았다.

거인병원은 그동안 불우이웃돕기, 김장나눔행사 등 소외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전개해왔다. 아울러 불교봉사신행단체인 사단법인 미소원, 연제구장애인협회, 부산씨름협회, 부산 16개 구군장애인법인연합회와 MOU를 체결해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거인병원은 관절 및 척추, 스포츠의학을 전문으로 하며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및 영상의학과가 있다. 개원 당시 작은 탐욕이나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우직하게 환자만을 위해 자리를 지킨다는 의미로 거인이란 상호로 출발했다. 환자의 마음까지 보듬을 수 있는 전인적인 의료를 지향하며 대학병원 교수 출신의 의료진으로 구성돼 신뢰를 더하고 있다.

이번 협약식은 김종숙 법연종 신도부회장과 이숙희 거인병원 사무국장과의 인연으로 시작됐다. 평소 김종숙 법연종 신도부회장은 어르신들이 사찰 순례 후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던 것을 주의 깊게 들었다. 이후 신뢰할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수소문 하던 가운데 인연이 있던 이숙희 거인병원 사무국장과 연락이 닿게 되어 협약식을 맺게 됐다.

이날 행사에는 허성 법연종 법연원 이사, 김종숙 법연종 신도부회장, 김윤주 법연종 사무총장과 이숙희 거인병원 사무국장, 김현우 원무부장 등 관계자들이 동참했다.

허성 법연종 이사는 “이번 거인병원과 MOU를 통해서 우리 신도들이 건강히 생활하시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 사상구불교聯 봉축점등식

5월 1일, 사상 르네시떼 광장서



부산사상구불교연합회(회장 성림)가 5월 1일 사상 서부터미널 르네시떼 광장 특설무대에서 봉축 연등 점등식을 봉행했다.〈사진〉

점등식 식전행사로 사상구 발전과 구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부산무형문화재 9호 영산재 시연이 진행됐으며 이어서 트롯장구, 팝페라가수, 해금나리, 색소폰, 가수 선미의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본 행사는 △개회선언 △삼귀의 △반야심경봉독 △내빈소개 △점등 △발원문 △봉행사 △봉축사 △격려사 △축사 △법문 순으로 진행됐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보운 스님은 “사상구불교연합회는 코로나로 인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구민들을 위한 나눔과 실천을 멈추지 않고 원력을 다해주셨다. 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리의 눈은 항상 밝은 곳을 향하기 마련”이라고 격려사를 전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생명나눔 부산, 15회 생명나눔 걷기대회

4월 29일, 초읍 어린이대공원서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 · 이하 부산생명나눔)가 4월 29일 초읍 어린이대공원 일원에서 ‘희망세상 만들기 제15회 생명나눔 명상 걷기대회’를 개최했다.〈사진〉

부산생명나눔은 매년 생명 존중 사상을 널리 알리고 걷기 명상을 통한 힐링의 시간을 시민들에게 선사하고 있다.

명상 걷기대회 개막식에서 부산생명나눔은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를 전달하고 건강을 기원했다. 걷기대회에는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장 심산 스님과 부본부장 자인 스님, 총무이사 성문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시민들의 다채로운 참여를 위해 부산생명나눔은 걷기대회에서 싱잉볼을 통해 명상을 체험하도록 도왔으며 생명초 만들기, 비누 만들기, 싱잉볼 체험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부스가 마련됐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남해불교聯, 불기2567년 봉축 점등식

4월 30일, 남해 유배문학관 광장서



남해불교사암연합회(회장 성각)가 4월 30일 남해 유배문학관 앞 광장에서 불기2567년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다.〈사진〉

점등식에는 남해불교연합회 회장 성각 스님, 보리암 성조 스님, 화방사 선문 스님, 운대암 도응 스님, 법흥사 정안 스님, 용문사 승원 스님, 염불암 경진 스님, 낙가사 성준 스님, 화방선원 종문 스님, 장충남 남해군수, 임태식 의회의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남해불교봉사단, 각 사찰 임원진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사, 삼귀의례, 반야심경, 내빈소개, 인사말, 법어, 축사, 발원문, 점등식, 사홍서원, 정근 순으로 진행됐다.

남해군불교연합회 회장 성각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고 모두가 평등하고 공경하는 부처님 세상이 되길 염원하는 의미를 담아 오늘 환한 불을 밝힌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